

성문학 잇단 출간

최근 농도질은 국내외의 性文學書가 잇따라 출간돼 출판물 표현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외설시비의 소지도 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외설문학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헨리 밀러의 소설 「북회귀선」이 국내에서는 지난해 당국

의 주의조치가 있었지만 문학세계사에서 출간돼 사실상 해금됐으며 지난달에는 중국고전 성문학서인 「금병매」 5권 (고려원판) 과 「미앙생」 3권 (까치판) 이 나옴에 이어 최근 馬光洙교수(연세대)의 문제작 「즐거운 사라」(청하판)가 나왔다.

이중 性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馬光洙의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는 원래 지난해 7월 모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나 당국의 심의에 걸려 검토조치를 받고 결국 한달만에 출판사측이 자진 철회했던 작품이다. 이번에 청하출판사가 펴낸 이 책은 지난해

작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가, 더욱 뜨거운 외설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일체의 도덕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발흥하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正體性)를 확립 하려고 애쓰는 한 여대생의 시각을 통해 전환되는 가치관의 문제를 조망하는 한편은 페넨 성문제를 과감하게 토론의 장에 올려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성행위와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함께 외설을 뛰어넘는 문명에 대한 비판과 존재론적 통찰력을 담고 있는 「북회귀선」은 1934년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금서가 돼 지난 61년에야 판매했다가 80년대 이후 91년에야 출간될 수 있었다. 이 책은 현재 25쇄를 찍어 20만부 이상이 팔리는 인기작을 끌고 있다. 「미앙생」은 중국 元나라 말기인 1300년대 대학사 李漁가 당시의 시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쓴 성문학서인 「肉捕團」을 우리나라 소설가 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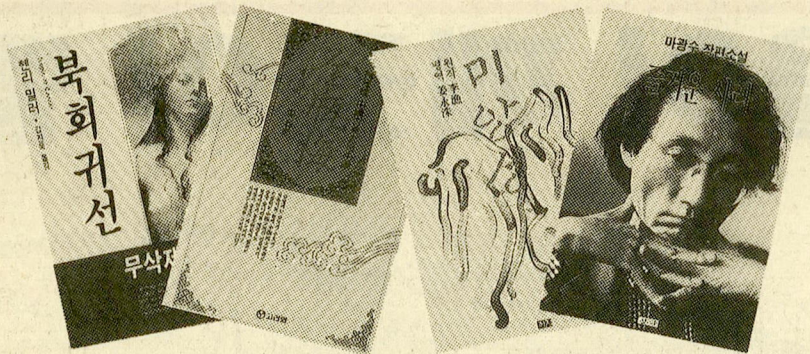
작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가, 더욱 뜨거운 외설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일체의 도덕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발흥하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正體性)를 확립 하려고 애쓰는 한 여대생의 시각을 통해 전환되는 가치관의 문제를 조망하는 한편은 페넨 성문제를 과감하게 토론의 장에 올려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직접적인 묘사와 함께 외설을 뛰어넘는 문명에 대한 비판과 존재론적 통찰력을 담고 있는 「북회귀선」은 1934년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금서가 돼 지난 61년에야 판매했다가 80년대 이후 91년에야 출간될 수 있었다. 이 책은 현재 25쇄를 찍어 20만부 이상이 팔리는 인기작을 끌고 있다. 「미앙생」은 중국 元나라 말기인 1300년대 대학사 李漁가 당시의 시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쓴 성문학서인 「肉捕團」을 우리나라 소설가 姜

소설인 이 책은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중국 山西省을 무대로 未央生이란 인물이 갖은 호색과 방탕한 일을 하다가 과멸해 결국에는 佛門에 귀의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즐거운... 「세계부분」 추가 재출간

북회귀선 91년 허가 25판 찍어



최근 性문학서가 잇따라 나오면서 외설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미 앙 생 「肉捕團」 현대적으로 評譯

금 병 매 본능적 性-애정 갈등 그려

永洙씨가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評譯한 것. 「금병매」와 비교되는 중국

이러한 작품의 외설시비에 대해 金允植서울대교수(문학평론)는 「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에 대해 정부가 작거나 독자인 언론처럼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옳으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결국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교수는 작품속의 性的 개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병매」는 삼국지「수호지」 「서유기」와 함께 중국의 4대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 소설가 河瓊燦씨가 중국 宋나라의 혼란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서민정반금련 이병아 무술승이 벌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性과 애정의 갈등을 현대적 문체로 새로이 고쳐 썼다. 발간 한달만에 15만부가 나가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병매」는 삼국지「수호지」 「서유기」와 함께 중국의 4대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 소설가 河瓊燦씨가 중국 宋나라의 혼란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서민정반금련 이병아 무술승이 벌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性과 애정의 갈등을 현대적 문체로 새로이 고쳐 썼다. 발간 한달만에 15만부가 나가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老莊 사상과 불교의 교리, 仙家의 仙術을 당시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끌고가고 있어 格調를 잃지는 않고 있다. 평역자인 姜씨는 「4권 20책이란 방대한 양의 한문으로 돼 있는 원문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농도질은 묘사 끊임없는 외설시비... 북회귀선 금병매 미앙생 즐거운 사라